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17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발치에 앉아 편히 쉬고 싶습니다. 부질없는 말을 버리고 우리 생명의 영원한 고향이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은 어지럽습니다. 무익한 논쟁과 경쟁심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을 인정하기에 인색한 정신의 허영심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곤 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무력하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과도한 욕망과, 복잡한 생각들과, 병적인 회상으로 녹진녹진해진 우리 영혼을 은총의 햇살로 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의 오관을 활짝 엽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롬3:23-24	인도자
----------------	----------------	-----

♠ 교 독 문	18. 시편67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문영혜 집사 II. 구성실 장로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442.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막9:14-17	인도자
------------	-------------------	-----

II. 요10:11-18	김준호 권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귀신 들린 내 아들	김재흥 목사
-----------	---------------------	--------

II. 밥이 되신 목자	김기석 목사
--------------------	--------

성 찬 식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281. 아무 흠도 없고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과 이웃을 대하십시오. 이 척박한 역사의 한복판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들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의 뜻을 온 힘을 다해 받들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들을 깨뜨리며 살겠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써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앞지르려는 조바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4남선교회 주최예배	10월 기도의 밤
말씀 : 김재흥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장현애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허정윤 권사

10월	영접위원	구성실 김중수 박범희 이순정 최숙화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창운 하현철 유영남 박혜경 박홍재

여덟 가지 악에 관해서1

(앞으로 몇 주 동안 존 카시안John Cassian이 남긴 여덟 가지 악덕—탐식, 부정, 탐욕, 분, 낙심, 태만, 자만심, 교만—에 관한 글을 소개합니다. 그는 360년 경에 로마의 스키타이에서 태어나서, 젊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후 이집트, 콘스탄티노플, 로마, 고을 등지에서 수도생활을 했고, 나중에는 마르세이유 근처에 두 개의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서방의 수도원운동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식욕 제어에 관하여

먼저, 탐식의 반대 개념인 식욕의 제어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며, 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않고 거룩한 교부들에게서 받은 것들만 이야기하려 합니다. 거룩한 교부들은 금식을 위해서 단 하나의 규칙이나 음식을 먹는 데 대한 단 하나의 표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체력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나이, 질병, 또는 체력 등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하나의 목표—지나치게 먹거나 배부르게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사흘, 나흘, 혹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것보다 하루 동안 금식하는 것이 순수함을 획득하는 데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부들의 말에 의하면, 지나치게 오랫동안 금식하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음식을 적게 먹거나 영성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몸의 기력이 쇠약해지며, 반면에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영혼이 나태하고 게을러집니다.

또 교부들은 야채나 콩을 먹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마른 빵을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마른 빵 두 개를 먹고도 배고파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개나 반 개를 먹고도 만족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부들은 극기에 대해서 하나의 기본적인 규칙을 전해 주었습니다. “족하리 만큼 먹으라. 과식하므로 토할까 두려우니라”(잠25:16). 음식의 종류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분량도 부정(不眞)의 불화살에 불을 붙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배불리 먹으면, 방탕의 씨앗이 싹틔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물이나 다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졸리고 지각을 잃게 됩니다.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소돔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포도주나 다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빵을 과식했기 때문입니다(겔16:49 참조).

만일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의 쾌락 욕구를 충족시켜줄 것을 공급하지 않고 병의 회복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면, 질병은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욕구의 충동에 노예가 될 정도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히 먹으면 몸의 건강을 유지하며 거룩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부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극기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을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먹지 말고 배가 고프다 싶을 정도로 만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13:14)고 말한 것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방종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다른 덕행을 병행하여 실천하지 않는 한, 음식을 삼가는 것 자체만으로는 영혼이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순종과 육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실천하는 겸손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기를 원치 않음으로써 탐욕을 피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함에 이를 것입니다. 노염, 낙담, 자만심, 교만 등으로부터의 자유는 영혼의 전반적인 깨끗함에 기여하지만, 극기와 금식은 억제와 중용을 통해서 영혼의 특별한 깨끗함을 가져다줍니다. 배부른 사람은 정신적으로 부정의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식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금식 뿐만 아니라 철야, 노동, 영적 독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을 집중하고 천국을 갈망함으로써 몸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계속)

추석 성묘

추석에는 교외선을 타자
힘있게 흐르는 강물이 천리강산을 달려와서
몇 평의 모래밭을 만드는 것을
산에 마음을 주며 네 자랐던 곳
서울서 기차를 타고 여섯 시간
하늘 가까이 내려오다 멈춘 동네
백로의 날갯짓과도 같고 웅덩이의 잔물결과도 같은
우리 조상님네의 숨결이 어려 있는 땅

추석에는 우리 다 함께 교외선을 타자
저 허공 위에 빗장고름 펼 펼 날리며
도라지 풀초롱꽃 더위술을 걸러 마시고
어느 여울물에 손발을 씻자
손발을 씻어 새 힘으로 뭉쳐서 돌아오자.(송수권의 시 부분)

* 오늘, 그리운 모천으로 가시는 나그네들이여, 세상 비바람에 잔뜩 녹진 마음뿐이라두, 가을 장마 속에 주워 올린 풋사과 한 알뿐이라두, 구금 속에 못다 뜯은 쟁반달뿐이라두, 넉넉한 고향 마음별에 보송보송하여라. 모두모두 용서하고, '여울물에 손발 씻고 새 힘으로 뭉쳐서' 돌아오시라.(송수권의 시에 대한 반철환의 감상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정오 장민숙 박옥식 박병선 조병무 송양진 조관행
 홍선희 오진훈 노순옥 박규석 박경선 장영숙 박애순 임승동 백혜숙
 박영희 김지윤 김훈동 김지호 고광송 이춘희 김금순 오자영 최미선
 임보람 안정숙 무명1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김현영 정원석 이동천 김수연 김남종 오복순 박병구
 이광섭 박석희 조항미 왕수명 이정은 서정순 박순성 김승현 김수진
 이호원 박찬정

감사헌금:

문금석 이정은 김금하 박숙현 김대규 김지윤 임창선 정두리 김정길
 최숙화 서정순 오진훈 노순옥 고재중 정현창 무명3

생일감사헌금: 박찬정 김경민 구도헌금: 이재문

◇ 속회 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김애경	홍순덕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문인옥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진경	문영혜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안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김춘려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장혜숙	김금순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구성실	최종원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정현주	임수연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최영선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임창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세계성찬주일** :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분열된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 **오후 집회** : 제4남선교회 주최예배입니다.
3.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4. **기도의 밤** : 오는 4일(수) 저녁 7시 30분에 10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삶의 리듬을 하나님의 리듬에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5. **추석** : 가족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추석 가정 예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다음 주일(8)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6. **백주년 기념사업 헌금** : 귀한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헌금을 작성하시고, 때를 따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추석 상을 겸손하게 차리십시오. 그리고 귀한 명절이면 더욱 외로워지는 이웃들을 한번쯤 돌아보십시오.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천사를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 식당 봉사 : 갈릴리 속

* 헌화 : 이한림 집사 김명희 집사 (결혼 기념)

<새교우 소개>

2632 권미숙 소속: 3여선교회

2633 이정현 소속: 청년부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